

## 地方大學과 鄉土文化

金 榮 敦

(濟州大 國語國文學科 教授)

大學이 그 지역의 文化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敎科課程 속의 鄉土文化講座 設置, 鄉土研究 학생서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支援, 地域社會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地域民을 위한 大學設施의 開放, 그리고 地域社會의 企業과 民間이 主導하는 鄉土文化關係 研究所 설치·운영의 誘導 등이 있다.

### I

엄밀한 의미에서 「地方大學」이라는 말은 성립되기 어렵다. 모든 대학들이 서울地方, 嶺南地方, 湖南地方, 濟州地方 등 어느 地方인가 소속되기 마련이므로 전국 대학 모두가 地方大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地方」이라는 말을 「首都 이외의 지역」이라 속되게 해석하고 서울특별시 외에 흩어져 있는 대학들을 「地方大學」이라는 말 속에 편이상 두루뭉술리로 묶어 본다.

우리 나라도 경향각지에 高等教育機關이 부쩍 늘어나고 대학생이 100만 명을 육박하는 오늘날이니 바야흐로 高等教育 大衆化의 추세로 출달음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에는 동일 연령층의 대학진학률이 16%였는데 1982년에는 무려 24%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10년 후이면 50%를 육박하게 될지 모른다. University가 사실상 Multiversity로 탈바꿈하는 오늘, 韓國 大學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大學은 과연 어떤 모습의 大學이어야 하는가, 研究·敎育·奉仕라는 大學 本來의 三大使命은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 대학이 단지 학생들이 受講하고 정해진 規程에 따라 피동적으로 學點을 이수하며 거쳐 가는 곳이라기보다, 研究와 生活를 즐기는 곳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改革과 態勢가 필요한 것인가, 오늘날 대학마다 설정된 바 敎科課程은 어떤 학생들의 내일을 위하여 타당한 것인가—술한 難題가 우리 앞에 첩첩 쌓여 있다. 그 가운데 이 나라 地方大學의 位相과 色彩를 제각기 어떤 모습으로 형성하느냐는 과제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서울 소재의 大學들에 미하여 이른바 地方大學이 처해 있는 實相은 어떠한가?

2) 地方大學이 안고 있는 課題는 무엇인가?

3) 地方大學은 각각 어떠한 色彩를 띠어야 하는게 타당한가?

4) 地方大學은 그 地域社會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어떻게 提携해야 하는가?

5) 地方大學은 그 地域社會의 鄉土文化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6) 그 地域社會 鄉土文化의 발전을 위하여 地方大學은 무엇을 어떻게 改革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1) 4) 5) 6)에 역점을 두어 논의해 보기로 한다.

## II

우리 나라에는 많은 大學들과 대부분의 大學人口가 서울에 몰리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정치·경제·문화·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서울 집중 현상이 두드러져서니와, 교육 역시 지나칠 만큼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 서울 소재의 大學과 大學인들이 韓國大學 전반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서울의 異常肥大化 現象은 급기야 國家的 次元에서 커다란 課題로 등장하면서 이 거창한 病理現象을 치유키 위하여 갖은 방법으로 바람직한 대책을 세우고 있거니와, 우선 절실한 일은 “서울이면 萬能이다”라는 中央集權的 痼疾의 思考가 국민들의 의식에서 말끔히 가셔져야 하리라 본다.

근래 정부 당국의 문교시책에 따라 반감제도 地方大學의 外形的 發展에 있어 긍정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여러 지역에 많은 大學들이 擴張, 新設되어 가는가 하면, 그 수용능력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불어나가는 형편이다. 그 지역 대학에 대한 地域民들의 愛情도 나날이 피어난다. 그러나 서울 萬能의 思考는 아직도 治癒되지 않았으니, 이런 가운데 地方大學이 설 자리는 어디이며, 어떤 色彩를 띠어야 할 것인가?

지방대학은 지방대학으로서의 강력한 빛깔을 띠고 있어야 한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대학과 꼭 마찬가지로의 대학이 한 지역에 놓여 있다면, 그 存立價値는 찾아 보기 어렵다. 서울에 있는 A라는 대학과 거의 비슷한 B라는 대학이 어느 지역에 놓여 있을 때, B대학이 그 특유의 빛깔을 띠지 못한다면 B대학이 지니는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 B대학은 A대학을 좇아 A대학을 닮아 가려는 데 全力投球할 뿐인 것이다.

지방대학은 두 가지의 使命을 동시에 수행해

나가야 한다. 하나는 세계 어느 대학에든 공통되는 모든 분야에 걸친 普遍的 學術研究의 기능이요, 또 하나는 그 大學 特有的의 狀況에서 제기되는 과제의 해결이다. 그 大學 特有的의 여건에 근거할 때 마땅히 鄉土文化가 논의되고 서로가 연결될 근거를 찾게 된다.

鄉土文化를 운운하면 자칫 자기 나름의 울타리를 쌓고 채집된 상태의 쇼비니즘을 의식하기 쉽다. 國學과 관련된 전공분야의 학자들은 어떤 면으로 접근하든, 그 지역 鄉土文化에 관심을 쏟기 마련이요 어느 측면에서든 작업을 치르기 마련이지만, 전공과 관련 없는 이들에게는 이들의 관심과 작업이 너무 외풍로만 출몰음치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다. 文化에 대한 意義規定은 1백수십에 이른다지만, 文化를 넓은 뜻으로 풀이하여 「自然을 이용한 人間의 作爲 전반」으로 볼 때 그 영역은 참 광활해져서 人文·社會科學 모든 분야와 自爲科學까지도 포괄할 터인데, 자칫 文化研究活動의 각도가 通時的 觀點에만 쏠리게 될 때면 오늘날의 文化藝術 活動에 종사하는 人士들에게는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素地가 된다.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大學은 대학마다 그 대학 나름의 냄새가 짙게 풍겨야 하듯, 지방대학은 鄉土文化와 관련되면서 그 個性이 뚜렷해야 한다. 이 세상에 꼭 같은 대학이 있을 수 없음은 꼭 같은 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음과 같다.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김철수, 박순희가 있을 뿐이다. 「꽃」이라는 꽃이 어디 있을까? 무궁화꽃, 나팔꽃이 있을 뿐이다.

이 세상의 온갖 現象에는 普遍性的의 비중도 높지마는 그 普遍性은 개개의 特殊性에 근거한다. 가장 特殊的인 것은 가장 普遍的인 것이다. 普遍은 特殊의 總和로써 이룩되며, 모든 학문은 좁고 깊은 特殊性에서 출발한다. 百花繚亂한 꽃동산은 무궁화꽃, 나팔꽃, 개나리꽃 등의 集合으로써 이루어지며, 김철수, 박순희, 존·투스등이 모여 人類를 이룬다. 무궁화꽃, 나팔꽃, 개나리꽃이나, 김철수, 박순희, 존·투스는 共通分母的 要素도 있지마는, 特殊要素도 있다.

지방대학이 그 향토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됨은 研究·教育·奉仕라는 대학이 지니는 機能으로 보더라도 당연하다.

敎育과 研究의 기능은 大學 本來의 屬性이며 大學은 이른바 眞理探究의 象牙塔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敎育法 제108조에서 역시 大學敎育의 第一義의 機能은 研究와 敎育임을 밝히고 있다. 물론 研究와 敎育 자체가 사회발전을 위한 奉仕行爲이긴 하지만, 大學의 양적 팽창에 따라 大學의 奉仕의 機能이 세삼 강조되는 게 세계적 추세다.

研究·敎育·奉仕가 대학에서 가지는 그 각각의 비중이 어떻게든, 郷土文化와 관련된 研究作業과 敎育活動이 대학마다 活性化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 지역사회의 문화현상에 奉仕하면서 이를 先導해야 할 책무를 모든 지방대학들은 짊어지고 있다.

大學은 人類가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人類의 必要에 따라 이룩된 大學은 人類를 위해 있어야 마땅하므로, 가장 가까운 地域民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의 생활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며 주민들의 價値體系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해야 함은 극히 당연한 기능일 것이다.

### III

근래 大學社會, 특히 大學生들 사이에 우리의 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수들의 논문에도 지역사회와 관련된 작업들이 나날이 불어나는가 하면, 지역 사회를 위한 연구활동이 날이 갈수록 熱氣가 뜨거워간다. 필자가 봉직하고 있는 濟州大學校의 예를 든다면, 이제까지 대학에서 내는 「논문집」에 실린 논문 편수가 제17집까지 도합 744편인데 제주지역에 관련된 논문이 212편이니 무려 28.5%에 이르고 있다.

大學의 學術研究機能은 研究所에서 主導되어야 하는데, 아다시피 대학부설연구소 거의가 有名無實, 아니면 零細運營狀態에서 해매는 경향이 짙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대학 자체 내에서 研究所를 庶子格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大學 밖에서의 인식도 몇몇 연구소를 빼면 별로 긍정적일 수 없다. 어차피 社會的 機關으로서의 專門의

機能을 지니고 있는 大學의 부설연구소는 大學의 放射中心으로서 國際의 性格을 동시에 지닌다. 研究所에서 제기되는 모든 課題는 國際間的인 긴밀한 交流와 協業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의 法定研究所인 耽羅文化研究所, 放射能利用研究所, 海洋資源研究所 등은 이미 국제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韓國大學年鑑」에 따르면 全國大學에는 839개의 研究所가 있는데 향토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研究所는 6.6%인 55개이다. (표 1 참조)

〈표 1〉 대학부설연구소 현황

구 분	국립 대학	사립 대학	교육 대학	전문 대학	계
부설연구소 수	183	535	33	88	839
향토관계연구소	11	39	2	3	55

자료: 韓國大學年鑑(창간호, 1982. 12. 20, (株)에드 영 출판부)

細分化된 모든 대학에서의 학문이 研究所 中心으로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각 대학내 研究所를 면밀히 再檢討하고 집중적으로 키워 나갈 때 大學 內的 機能이 生動感을 갖게 될 것은 물론이요, 地域文化와 民族 正統性 確立 등 사회에 대한 공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요는 大學人들이 郷土文化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觀點의 문제다. 사람이 살아감은 多元的인 것이어서, 어느 특정 국가 국민의 생활방식이 人類生活의 基準이 될 수는 없다. 한국인의 생활태도와 한국인의 의식을 類型化(patterning)하는 작업이 근래 썩 활발해져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소중한 작업이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다. 요는 국내 어느 지역의 文化든 그 나름의 뜻이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서울의 郷土文化가 우월하고 濟州의 郷土文化가 低劣하다든가 하는 優劣意識이 우리들 내면에 깔려 있다면 이는 文化理論의 바탕을 외면한 관점이다. 서울 중심의 中央文化에 비해 嶺南文化나 湖南文化는 低級의 문화라는 의식, 곧 周邊文化視하는 의식은, 마치 韓國文化 자체에 대한 自生的 原理, 곧 獨自性을 외면하려는 植民地의 民族觀과 다를 바 없다.

어느 한 지역이든, 한 겨레든, 완벽하게 自生

的인 文化現象만으로써 충만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강물이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흘러가듯 文化 역시 中央에서 地方으로 흘러들어가 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이 부당한 논리와 思考가 이 나라에는 너무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는 많은 까닭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光復 前에 뿌리 내린 植民地的 民族觀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통하여 痼疾화된 中央集權的 政治體制와 社會制度로 말미암은 妄執 같은 관념에 연유한다. 여러 민족이나 지역의 文化유형은 發展과 後進 등으로 그레프처럼 圖式化하는 垂直的 裁斷으로 풀이할 것이 아니라 한 水平 위의 슬한 덩이처럼 多元的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지구상의 이른바 未開人들의 생활현상에도 그 만큼의 體系와 論理를 지닌다는 점은 周知하는 바다.

地域文化를 低劣視하는 曲解의 偶像은 파괴되어야 한다. 제각기 그 나름의 體系와 論理를 지니고 형성되었다는 관점에서 모든 民族, 모든 地域의 文化를 보는 눈이 설정되고, 水平線上에서 모든 지역의 文化를 해석하는 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鄉土文化」 운운하는 자체가 뜻이 없다. “귀중한 전승문화인데 사라지기 전에 가꾸어야 한다”든가, “固有의 鄉土文化이니까 보존해야 한다”든가 하는 말밖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귀중한 전승문화」, 또는 「固有의 鄉土文化」의 본바탕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며, 그 지역마다의 文化현상을 先進外國이나 首都圈文化의 沈降財로 보는 눈으로써 접근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文化財는 왜 소중한가?”라고 물을 때 언필칭 “민족의 얼이 담겨 있으니까”, 또는 “사라져가니까” 정도의 답변만으로는 皮相의 이득, 民族自尊에 터진한 확고한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터이다. 自我가 自我의 主人이라는 自己同一性의 확인, 곧 自尊意識이 흔들릴 때면 文化財나 生活習慣을 한갓 化石, 殘留, 遺物, 舊習, 骨董, 保守, 反時代, 脫歷史, 不合理, 怪奇, 原型, 蕪雜, 卑陋로 보기 쉽다. 首都文化에 비해 地方文化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그릇된 관념부터 배제해야 하는 게 이 나라 모든 국민, 특히 地方大學 大學人들의 사명

이다.

차라리 이런 정도의 認識은 國民의 良識으로서 보편화되었어야 옳다. 국민의 일반상식으로 정착되어야 마땅한 일이니, 이른바 知識層까지도 優劣論으로 제리는 엉뚱한 先人見에 류인 경우가 혼함을 볼 때 심히 안타깝다. 이것은 국민의 文化意識이 急成長하는 經濟力을 좇지 못하는 근거다. 국민들의 文化意識을 드높이는 일 자체가 大學이 떠맡은 시급하고 소중한 課業이다.

#### IV

그러면 大學教育이 鄉土文化의 振作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이바지할 수 있는 現實的 方案은 무엇일까.

첫째, 地方大學의 教科課程 편성에 있어 鄉土文化의 이해를 돕기 위한 講座設定을 생각할 수 있다. 鄉土文化를 다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니, 하나는 강좌를 아예 「향토문화의 이해」, 혹은 「○○지역인의 생활과 문화」 등으로 독립시켜서 다루는 경우요, 또 하나는 일반강좌를 다루어 나갈 때 그 지역의 자료분석을 일정기간 동안 시도하는 경우다. 설령 국어국문학과와 같은 「歌辭論」 강좌라면 그 지역과 관련이 깊은 歌辭도 함께 다루어 나간다면, 「說話論」이거나 「民謠論」이라면 그 지역의 說話와 民謠에 치중된 강의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사람들은 具象的, 日常的, 可視的인 데서 興味와 緊張體系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토문화의 이해」 등의 강좌에서는 분야별로 집중적인 강의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한 강좌를 두세 교수가 담당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教材編纂과 講義計劃 등이 大學마다 개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벌써 몇 대학에서는 教養課程에 鄉土文化의 강좌를 설정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 있지만, 아직 바람직한 教材定立과 教科運營方案 확립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듯하다. 날이 갈수록 대학생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는 짙어가는 형편이므로 이러한 강좌운영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둘째, 향토연구 학생서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대학마다 각 학과의 연구회와 서클이 많은 비중을 향토문화와의 연결에 두고 있다. 내일의 主役인 대학생들이 自己正體性을 확인하려는 경향은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48개에 이르는 서클 가운데 향토연구와 관련된 서클은 8개에 이른다. 서클에서는 연중 현지 조사와 연구 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등을 활발히 계획하고 개최하며, 회지를 발간하느라 항상 부산하다. 각 학과의 연구회야 물론 철저히 장려해야겠지만, 서클활동은 학생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機能이 있는가 하면, 서클활동에 너무 극성스러울 때 學業을 침해하는 逆機能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어쨌든 서클활동은 能動的인요 積極的인 일 뿐더러 成就欲求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심한 지도는 그 효과가 자못 크다. 지역을 파악하고 논의하려는 학생들의 意欲은 높지마는, 그 의욕에 비해 基礎知識과 接近方法에는 좀 어둡다. 이들의 향토에 대한 관심은 지역민의 意識構造를 살리려는, 곧 어떤 意味를 찾으려는 경향이 짙은 데, 이에 앞서 郷土文化의 實相을 어느 한 측면에서 수집, 정리, 분석하는 일부터 서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熱意있게 지도해 나간다면 郷土文化의 定立은 물론이요, 앞날에 향토를 위해 헌신해 나갈 미래의 主役으로서의 良識을 쌓아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세째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의 설정과 실시를 들 수 있다. 대학내에 夜間講座를 실시한다든가 放送通信大學의 강좌를 이끈다든가 하는 일 자체가 벌써 地域社會를 위한 봉사이다. 教育大學院, 經營大學院, 行政大學院 등을 설치하여 週末, 夜間, 또는 放學期間에 講座를 실시해 나가는 것도 그 지역에 대한 공헌이다. 대학내 각 연구소의 연구발표나 조사활동에 지역사회인사를 참여시킨다든가, 대학에서 출판되는 각종 자료들을 활용할 만한 機關·團體나 개인에게 배포하는 일도 효과적이다. 각종 대학내 연구소가 조사연구할 때 문호를 활짝 열어 地域社會人士를 그 조사연구위원으로 참여시켜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거니와, 각종 학술지에는 이들의 調查報告와 研究論文을 받아들

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니, 地域研究는 大學이 主導하되 大學과 地域社會人士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태세를 굳혀 나가는 게 타당하다. 대학에서 深奧한 學術的 研究와 教授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아울러 유네스코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적 추세인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평생에 통한 교육의 실시가 우선 지역사회에서부터 꽃피워 나가야 할 것이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민들의 平生教育, 普遍教育을 위하여 季節大學 講座를 설정할 수도 있다. 夏季大學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되, 그 講座 속에는 郷土文化, 곧 歷史, 生活史, 民俗, 言語, 經濟, 生業, 社會, 動植物, 資源開發, 觀光 등 폭 넓게 다루어 나갈 수도 있다.

네째, 대학의 시설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 사이의 높은 벽을 점차 허물어뜨리는 게 바람직하다. 곧 대학부설 박물관, 과학관 등의 개방이다. 찾아드는 방문객들을 즐겁고 유익하게 관람시키기 위해서는 박물관에는 學藝官(curator) 외에 博物館教師(museum teacher)가 배치되는 게 바람직하다.

다섯째, 大學外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향토문화의 조사, 연구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활성화하는 데 大學人들은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며, 마을마다 각종 郷土文化研究會가 민간단체로 조직되고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 지역 대학에서는 支援과 先導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의 향토문화 분야에 대한 각종 연구회의 설립과 활동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유도해 봄직도 한 일이다. 일부 지역사회의 言論機關이나 企業體에서 벌써 지역문화 연구기구를 설치하여 맹렬한 활동을 보이고 있거니와,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다.

## V

인구폭발, 교육폭발로 대학이 바야흐로 壟斷體制로 돌입한 오늘날, 이 나라 대학의 얼굴이나 빛깔도 바람직하게 탈바꿈해야 할 제제에 이르렀다.

지역간의 균형 있는 社會文化發展을 이룩해야 함은 이 나라의 절실한 先決課題요, 地方大學이

그 지역사회의 유대 속에 地方大學으로서의 個性을 질게 지니는 世界性을 떨 수 있다는 점에서도 急先務의 召命課題라 할 것이다. 이 至重한 課題遂行을 위해서는 文化現象의 多樣性을 수용하고 植民地的 文化觀에서 탈피하는 자세 확립이 先務에 當할 것을 우선 강조했다. 사람의 삶의 형태에는 반드시 優劣이 없는 것이니, 어느 특정 국가의 국민 생활양태가 세계인의 생활의 規準이 된대거나, 首都圈의 생활방법이 모든 지방인의 準據가 될 수는 없는 일이라면, 鄉土文化의 自尊性에 근거해서 地方大學의 빛깔을 살려야 그 研究와 教育은 全世界에 꽃필 것이다.

大學이 그 지역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① 敎科課程 속의 鄉土文化 講座 設置 ② 鄉土研究 학생서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 ③ 地域社會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④ 地域民을 위한 大學施設의 開放 ⑤ 地域社會의 企業과 民間이 主導하는 鄉土文化關係 研究所 설치·운영의 誘導 등을 우선 들었거니와, 이 밖에도 그 방안은 여러모로 모색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 앞서 地方大學이나 鄉土文化를 대하는 국민들의 자세 정립이 시급하다. 自尊意識이 밑받침되어야 개개인의 自我實現이 이루어지듯, 自尊意識이 전제되지 않은 鄉土文化研究나 民族文化研究는 바람직한 자세일 수 없다. 우리는 이제 中央集權的 思考를 止揚하고 각 지역문화의 多樣性과 獨尊性을 수용하는 태도부터 뿌리내려야 한다.

요마직에 이르러 主體意識 함양의 熱氣는 이 땅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다. 분명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무슨 대대적인 行狀을 치르거나, 有形文化財를 補修하고 캠페인 등을 벌임으로써 곧 一過的, 外形的, 可視的인 조치로써 民族主體意識이 함양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擧國의 次元에서 政府와 大學이 主導하고 지역별로 地理, 地質, 考古, 歷史, 文化, 民俗, 宗教, 教育, 産業, 資源, 生物 등의 資料調査가 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민의 集團意

識과 思考構造가 깊이 있게 조사, 연구돼야 마땅하다. 광복 40년이 지난 오늘, 郡單位로 몇 백 권 정도의 자료총서 조차 못 가졌음은, 우리의 관심이 經濟成長에만 급급한 나머지 學術, 文化, 특히 우리의 주변을 침착히 정리하려는 의욕과 투자가 소홀했던 탓이다. 이 점은 政府와 大學이 짊어져야 할 크나큰 책임이다. 어느 분야든 착실한 자료발굴이 이뤄지지 않은 채 學問의 큰 進展을 바라보기란 힘든 일이기도 하며 實務行政의 發想도 軌道를 이탈하기 쉽다. 우리가 이제까지 可視的, 物量的인 부면에는 엄청난 經費와 時間과 精力을 투입하면서도 각 지역의 實相 조사, 연구에는 인식해 온 게 분명할진대, 이렇고도 국민들의 문화인식이 高調되고 民族文化의 精粹가 밝혀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民族文化의 本領은 靑상을 마주하여 앉은 채 문헌을 뒤져보거나 관념으로써만 定立되는 게 아니라 각 지역 鄉土文化의 實相이 모든 부면에서 차곡차곡 밝혀진 터전 위에 歸納的인 總和로써 피라밋 형태를 이루며 歸結될 성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는 鄉土文化의 자료조사 및 정리를 위하여 획기적인 투자와 제도적 장치를 취해 줄 것을 政府와 지방대학 및 기업체에 강력히 촉구 하고 싶다. 이 艱스런 작업이 현실화되고, 그리고 量産되어 나오는 大學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자료조사원으로 흡수된다면, 그들의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다. 大學—政府—社會, 특히 企業이 三位一體가 되어 각 지역 鄉土文化의 자료조사 및 발굴을 國家的 次元에서 전개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先進祖國을 내다보기는 까마득한 일임을 힘주어 강조해 둔다. 地方大學과 鄉土文化의 실차리와 값어치가 제대로 잡히려면 자체내의 주체적 활동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온 국민과 정부당국이 地方이나 地方文化의 獨尊性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實相調査에 擧族的인 意慾과 投資를 함이 마땅하다. \*